

## 16. 젖소의 번식장애 유형과 주요 원인은?

번식장애란 암소의 경우 발정 주기의 반복이나 배란, 수정, 착상, 임신, 분만 등의 생리작용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정지되거나 장애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.

암소에 있어서 번식장애는 일반적으로

- ① 미경산우의 경우 3회 이상 수정 수태되지 않았을 때
- ② 경산우의 경우 분만 후 5개월까지 반복 수정해도 수태되지 않는 저수태우일 때
- ③ 번식 적령기에 도달하여도 발정이 오지 않을 때
- ④ 분만 후 3개월까지 발정이 오지 않을 때
- ⑤ 수태가 되어도 태아의 조기 사망, 유산 등을 일으킬 때
- ⑥ 분만 직전 또는 분만 경과 중 태아가 사망할 때
- ⑦ 14~16개월령 이후에도 발정징후가 불분명할 때
- ⑧ 14~16개월령까지 3회 이상 수정해도 수태가 되지 않을 때
- ⑨ 분만 후 30일이 경과하여 외음부가 혼탁하거나 농양물질이 유출될 때
- ⑩ 분만 후 40일이 경과하여 발정징후가 불분명할 때
- ⑪ 분만 후 40~80일에 2회 수정하여 수태되지 않을 때
- ⑫ 수정 후 다음 주기의 발정이 미약할 때
- ⑬ 치료 후 수정하여 수태가 되지 않을 때
- ⑭ 발정 후 5일 이상 되어 외음부에 점액이 흐르거나 외음부가 이완되어 있을 때
- ⑮ 수정 후 30일 이후에도 무발정 상태에서 수태가 되지 않을 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.

**번식 목표 달성을 위해,**

첫째는 여름철 고온스트레스로서 여름철의 후덥지근한 무더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

둘째는 발굽장애나 유방염과 같은 통증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는 번식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이 장애를 받게 되어 발정발현 및 수태에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, 사회적 서열에서 밀리게 되어 생산성이 크게 저하됩니다.

셋째는 2개월마다 신체중실지수를 측정하여 살이 찌거나 빠지는 정도가 심한 개체에 대해서는 특별 사양관리를 해야 합니다.

넷째는 난소낭종의 예방 및 처리로서 공태기간을 연장시키는 주된 요인들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.

다섯째는 미약발정으로서 난소 주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발정징후를 나타내지 않거나 아주 미약하게 발정징후를 나타내는 경우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번식장애 유형입니다.

여섯째는 후산정체로서 도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(낙농과 / 041-580-3381)